

#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표현 인식 연구

—문법적 표현과 상투적 표현을 중심으로—

사마와디 강해 · 황 선 영\*

## Abstract

**Samawadee Kungphae & Hwang, Sunyoung.** 2017. 9. 30. **A Study on Awareness of Pragmatic Expressions among Thai Korean Learners: Based on Grammatical Expressions and Conversation Expressions.** *Bilingual Research* 68, 27-5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wareness of pragmatic expression; grammatical expressions and conversation expressions, and to look for possibilities of pragmalinguistic failure that occurs due to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Thai languages. This study observes if Thai Korean Learners(TKL) perceive Korean pragmatic expressions like Korean Native Speakers(KNS). For this purpose, the pragmatic expressions were categorized into a) grammatical expressions, and b) conversational expressions. We surveyed samples of 45 TKL and KNS each on the awareness of pragmatic expressions, and carried out a Chi-squared test on their differences. Results showed that the pragmatic awareness of TKL was not much different from KNS when the speaker and listener are in equivalent social positions. However, when the listener is in a higher social position, TKS perceived the grammatical expressions as appropriate whereas KNS answered such expressions inappropriate to be used to someone in a higher social position. Moreover, the groups of TKS and KNS did not differ in awareness of conversation expressions. This may imply that the TKS acquired the non-literal meaning of conversation expressions, but post interviews with 5 learners showed that TKS made literal interpretations of non-literal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ven though TKS are aware of the basic meanings of grammatical

---

\* 사마와디 강해: 제 1저자, 황선영: 교신 저자

expressions, little know that they should be us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many try to literally interpret conversational expressions. Therefore, although beginners are taught the basic meanings of grammar and vocabulary, more explicit teaching on the expanded meaning or the situational use should be given to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pragmatic failure(화용적 실패), pragmatic awareness(화용 인식), grammatical expressions(문법적 표현), conversation expressions(상투적 표현), formula(상투어), pragmatic routine(화용적 상투어), 화용언어적(pragmalinguistic)

## 1. 서론

본 연구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화용적 표현<sup>1)</sup>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굴절어인 한국어에서 어미와 특정 어휘가 화용적 기능을 하는 것과는 달리 고립어인 태국어에서는 주로 어휘적 표현이 화용적 기능을 담당한다<sup>2)</sup>. 따라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형태, 통사적 차원에서 굴절되는 언어 표현의 화용적 기능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화용적 표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태국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용언어적 실패 (pragmalinguistic failure)<sup>3)</sup>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화용적 실패는 언어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 좀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언어적

- 1)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화용적 표현’이라고 하며, 화용적 자질을 가진 항목 중 ‘문법적 표현’과 ‘상투적 표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2) 최길시(1998: 70)에서는 고립어란 어법 관계를 나타내는 말의 발달이 없고, 낱말의 말이 독립되어 말의 위치에 따라 문법적 기능을 다하는 말이라고 하였고, 티베트어,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등이 고립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 3) 화용언어적 실패는 학습자가 올바른 담화 행동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잘못된 언어학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이해영, 2002: 61).

차이로 인해 화용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령, 한국인은 ‘미안하다’고 명시적인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다<sup>4)</sup>.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경우, 화용언어적 실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래 (1)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일으킨 화용언어적 실패의 예이다.

(1) <sup>?</sup>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친절하고 정말 선생님다워요.

태국어에서는 선생님께 ‘สมกับเป็นอาจารย์ (썸갑뻘아짘, 선생님답다)’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는 보통 윗사람을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 ‘선생님답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 ‘-답다’와 같은 문법적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사용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문법적 표현의 기본적 의미를 알더라도 실제 대화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 선행 연구 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문법적 항목의 습득이 화용적 기능의 습득까지 함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정란, 2011; 이해영, 2011; 황선영, 2014, 2016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표현에 대한 인식 중 먼저 화청자 간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문법적 항목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투적 표현<sup>5)</sup>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4) 이해영, 황선영, 노아실, 사마와디 강해(2016: 257)에 따르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ไม่เป็นไร (마이뻘라이, 괜찮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5) 본 연구의 ‘상투적 표현’은 Bardovi-Harlig(2010)의 ‘conventional expressions’을 의미한다. Bardovi-Harlig(2010)에서 ‘formula, routine’이라는 용어는 표현 전체가 덩어리로 저장되어 습득이 가능함을 전제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2언어

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관용적으로 굳어진 상투적 표현의 잘못된 사용은 화용언어적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는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고 하는 상황에서의 발화이다.

(2)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잠시만요.

한국어에서는 (2)에서와 같이 요청의 의미로 ‘잠시만요’와 같은 상투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잠시만요’는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되면 안 된다. 그러나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투적 표현 내에 숨겨진 ‘비켜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sup>6)</sup>. 태국어에서는 (2)와 같은 상황에서 ‘잠시만요’를 의미하는 표현들 ‘สักครู่ (씩크루), ประเดี๋ยว (쁘라디아우), เดี๋ยว หน่อย (디아우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상투적 표현의 언표내적(illocutionary)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실제 의사소통에서 화용언어적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투적 표현이 문자 그대로 축자적으로(literal) 해석되는 경우와 비축자적으로(nonliteral) 해석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태국인 학습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

학습자에게는 각 상황에 맞는 표현이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되므로 ‘conventional expressions’이라는 용어로 ‘good morning’과 같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상투적 표현에 대한 습득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연구에서는 이를 ‘고정적인 화용 표현’(문금현, 2009), ‘상투적 표현’(하지혜, 2014)이라고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표현’과의 비교를 위해 하지혜(2014)를 따라 ‘상투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거절, 요청, 감사 화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구어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표현들이 속한다.

- 6) 하지혜(2014)에서는 상투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의 직접성과 간접성이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에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축자적으로 해석되어 의미적 투명성이 높을수록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태국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의미적 투명성이 낮아 비축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상투적 표현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표현을 문법적 표현과 상투적 표현으로 분류하여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언어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판단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문법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화용적 표현의 인식에 한국인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상투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화용적 표현의 인식에 한국인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간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 방법

### 2.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각 45명씩 총 9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자료는 태국의 3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3, 4학년의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재학생의 경우 학년이 한국어 숙달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1, 2학년은 제외하고, 주어진 상황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화용적 항목의 습득에는 한국어 숙달도 외 거주 기간이나 한국어 상호 작용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선영, 2014: 433). 따라서 다른 변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 거주 경험이 거의 없으며 한국어 상호 작용 정도도 적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참여자 정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TKL)	한국어 모어 화자 (KNS)
인원	45명	45명
숙달도 (TOPIK 기준)	2~5급	모어 화자
연령	20대	20~30대
직업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한국 거주 기간	0~4개월 (평균: 0.69개월, 표준편차: 1.28)	-

##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2017년 3월에 예비 실험을 통해 모호한 상황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표현을 수정하였다. 화용적 표현에 대한 인식 검사를 위해 4간 척도와 주관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청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과 관례적으로 쓰이는 상투적 표현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 맞는 6개의 표현을 선정하였다.

Lo Castro(2006: 235)에서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각각의 대화 상황에서 다른 표현이 사용되거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표현 습득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Richards and Sukwivat(198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화용언어적 실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언어적 표현을 선정하였다. Richards and Sukwivat(1985)에서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인하

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동일한 상황에서 상이한 표현이 쓰이는 경우’, ‘동일한 표현이 상이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문헌 연구와 태국인 학습자의 화용적 오류 사례 조사를 통해 한국어와 태국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표현들을 수집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대상 항목을 분류, 선정하였다. 먼저 오류 사례 중 초, 중급에 교수되는 항목으로 추리고, 언어 차이로 인한 화용적 오류의 사례를 찾아보기 위하여 ‘태국인은 사용하지만 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항목’과 ‘한국인은 사용하지만 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태국인은 사용하지만 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항목’은 주로 문법적 표현이었으며, 모두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인은 사용하지만 태국인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항목’은 상투적 표현이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법적 표현은 화청자간 사회적 지위를 변인으로 삼았고, 상투적 표현은 축자적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변인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귀납적 방법을 거쳐 수집된 표현을 대상으로 3회의 예비 실험을 거쳐 문법적 표현 6개와 상투적 표현 6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에 따라 <표 2>와 같이 총 24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sup>7)</sup>.

7) 본 연구는 화용적 표현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 화행에 따라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선정하였다. 문법적 표현에는 거절할 때 쓰이는 표현 2개, 제안 할 때 1개, 변명 할 때 1개, 칭찬할 때 1개로 구성하였으며, 상투적 표현은 비축자적 의미로 해석될 때 각각 거절, 요청, 감사의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화행별로 분석하지는 않으므로 <표 2>에 각각의 표현이 쓰이는 상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표 2> 문항 개요

구분	대상 표현	변인	문항	
I. 문법적 표현	안	상	15	안 먹을게요
		동등	2	안 마실래
	못	상	19	못 해요
		동등	7	못 해
	-(으)비시다	상	8	식사하러 갑시다
		동등	21	커피 마시고 옵시다
	-(으)르 만하다	상	9	먹을 만해요
		동등	14	쓸 만하네
	-답다	상	20	선생님다워요
		동등	11	학생답다
	-(으)니까	상	3	어려우니까요
		동등	18	하니까
II. 상투적 표현	어떻게 해요?	축자적	13	어떻게 해요?
		비축자적	5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축자적	1	잠시만요
		비축자적	24	잠시만요
	싸게 샀어요	축자적	10	싸게 샀어요
		비축자적	22	싸게 샀어요
	덕분에	축자적	6	덕분에
		비축자적	16	덕분에
	뭘 이런 걸 사왔어?	축자적	23	뭘 이런 걸 사왔어?
		비축자적	12	뭘 이런 걸 사왔어?
	한번 생각해 볼게	축자적	17	한번 생각해 볼게
		비축자적	4	한번 생각해 볼게

위의 24개 문항은 각각 두 개의 하위 문항을 두었는데, 첫 번째는 제시된 상황에서 B의 발화가 적절한지, 비적절한지를 4간 척도로 묻는 질문이다. 두 번째는 실험 참여자들이 대상 발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는 문제이다. 실험지 문항의 예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8.**

당신(A)은 선생님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업을 끝내는 중입니다. 학생(B)은 선생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A: 그럼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 수업할까요?  
 B: 네. 선생님, 점심 약속 없으시면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밑줄 친 부분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①	②	③	④
부적절하다	약간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2) 위의 1)에서 ①, ②를 선택한 경우 부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꿔서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 부적절한 이유: \_\_\_\_\_
- 바르게 바꾼 것: \_\_\_\_\_

[그림 1] 설문지 문항의 예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설문지의 지시문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으며, 답변의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하여 부적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태국어로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 실시 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sup>8)</sup>. 또한 문항

에 대한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측정 결과, Cronbach의 알파계수가 .700으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 3. 문법적 표현 항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이 장에서는 문법적 표현으로 나타난 화용적 표현에 대한 태국인 학습자들의 인식을 한국인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를 보면 문법적 표현이 화용적 기능을 하는 항목으로는 ‘안, 못, -(으)비시다, -(으)니까, -(으)ㄴ 만하다, -답다’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문법적 표현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사용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항목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자와 지위가 동등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 3.1. 화청자가 동등할 때 문법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 문법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문항은 2, 7, 21, 14, 11, 18번이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 
- 8) 교차 분석은 두 가지 이상의 질적 범주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4간 척도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교차 분석의 기본 가정은 획득도수(obtained frequency)와 기대도수(expected frequency)가 5보다 작은 칸이 전체 칸 수의 2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 분석 결과,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이 20% 이상인 경우, Fisher의 정확 검증(Fisher's Exact Test) 값을 보고하였으며, 정확 검증 값은 ‘\*’로 표시하였다.

&lt;표 3&gt; 화청자의 지위가 동등한 경우 문법적 표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항목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 확률
			①	②	③	④			
2	안	KNS	0 (0%)	11 (24.4%)	28 (62.2%)	6 (13.3%)	6.998	3	.072
		TKL	6 (13.3%)	7 (15.6%)	27 (60%)	5 (11.1%)			
7	못	KNS	3 (6.7%)	8 (17.8%)	24 (53.3%)	10 (22.2%)	9.019	3	.029
		TKL	1 (2.2%)	6 (13.3%)	36 (80%)	2 (4.4%)			
21	-(으)비시다	KNS	0 (0%)	3 (6.7%)	28 (62.2%)	14 (31.1%)	11.118	3	.006*
		TKL	3 (6.7%)	3 (6.7%)	36 (80%)	3 (6.7%)			
14	-(으)르 만하다	KNS	2 (4.4%)	10 (22.2%)	23 (51.1%)	10 (22.2%)	16.218	3	.001
		TKL	0 (0%)	7 (15.6%)	38 (84.4%)	0 (0%)			
11	-답다	KNS	2 (4.4%)	11 (24.4%)	31 (68.8%)	1 (2.2%)	10.869	3	.007*
		TKL	2 (4.4%)	2 (4.4%)	34 (75.5%)	7 (15.6%)			
18	-(으)니까	KNS	0 (0%)	8 (17.8%)	28 (62.2%)	9 (20%)	13.919	3	.003
		TKL	4 (8.9%)	3 (6.7%)	37 (82.2%)	1 (2.2%)			

문항 2는 화자와 청자 간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 ‘안’의 사용을 본 것이었다. 한국인은 ‘적절하다’(62.2%)와 ‘매우 적절하다’(13.3%)를 선택하여 대부분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태국인 학습자 또한 한국인과 비슷한 선택을 하였다. ‘안’ 외에도 ‘못, -(으)비시다, -(으)니까, -(으)르 만하다, -답다’를 대상으로 한 모든 문항에서 실험 참여자 대부분이 ‘적절하다’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 문법

적 표현의 사용에 대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2와 문항 7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교차 분석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다’를 선택한 경우와 ‘매우 적절하다’를 선택한 경우에 차이까지 분석이 된 결과이다. 그러나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는 데는 공통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3.2 청자의 지위가 높을 때 문법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 문법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문항은 15, 19, 8, 9, 20, 3번이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청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문법적 표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항목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x <sup>2</sup>	자유도	유의 확률
			①	②	③	④			
15	안	KNS	17 (37.8%)	21 (46.7%)	7 (15.6%)	0 (0%)	6.675	2	.036
		TKL	18 (40%)	11 (24.4%)	16 (35.6%)	0 (0%)			
19	못	KNS	33 (73.3%)	9 (20%)	3 (6.7%)	0 (0%)	39.050	2	.000
		TKL	7 (15.6%)	8 (17.8%)	30 (66.7%)	0 (0%)			

8	-(으)비시다	KNS	24 (53.3%)	14 (31.1%)	7 (15.6%)	0 (0%)	28.818	3	.000
		TKL	9 (20%)	4 (8.9%)	29 (64.4%)	3 (6.7%)			
9	-(으)르 만하다	KNS	26 (57.7%)	12 (26.6%)	6 (13.3%)	1 (2.2%)	21.260	3	.000
		TKL	10 (22.2%)	7 (15.6%)	26 (57.7%)	2 (4.4%)			
20	-답다	KNS	18 (40%)	21 (46.7%)	6 (13.3%)	0 (0%)	38.504	3	.000
		TKL	3 (6.7%)	7 (15.6%)	32 (71.1%)	3 (6.7%)			
3	-(으)니까	KNS	15 (33.3%)	23 (51.1%)	7 (15.6%)	0 (0%)	12.995	3	.002*
		TKL	8 (17.8%)	36 (80%)	0 (0%)	1 (2.2%)			

문항 15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 ‘안’의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묻은 문항이었다. 한국인은 ‘매우 부적절하다’(37.8%), ‘부적절하다’(46.7%)를 선택한 반면, 태국인 학습자는 ‘적절하다’를 선택한 사람이 35.6%였다. ‘못’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묻은 문항 19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우 부적절하다’(73.3%) 또는 ‘부적절하다’(20%)를 선택했으나 태국인은 66.7%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문항 8의 ‘-(으)비시다’ 경우에도 한국인은 53.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31.1%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데 비해 태국인 학습자는 64.4%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으)르 만하다’를 묻은 문항 9에서도 한국인은 57.7%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26.6%가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태국인 학습자는 57.7%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20의 ‘-답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40%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46.7%가 ‘부적절하다’고 한 데 반해 태국인 학습자는 71.1%가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33.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고,

51.1%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으)니까’에 대해 물은 문항 3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80%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의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한국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안, 못, -(으)비시다, -(으)니까, -(으)리 만하다, -답다’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국인 학습자는 ‘-(으)니까’를 제외하고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문법적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15:  $x^2=6.675$ ,  $p=.036$ , 문항 19:  $x^2=39.050$ ,  $p=.000$ , 문항 8:  $x^2=28.818$ ,  $p=.000$ , 문항 9:  $x^2=21.260$ ,  $p=.000$ , 문항 20:  $x^2=38.504$ ,  $p=.000$ , 문항 3:  $x^2=12.995$ ,  $p=.002^*$ ).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쓰게 하였다. (3)은 ‘안’, (4)는 ‘못’, (5)는 ‘-(으)비시다’, (6)은 ‘-(으)리 만하다’, (7)은 ‘-답다’, (8)은 ‘-(으)니까’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답변이다<sup>9)</sup>.

(3)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K36, K43)

어른에게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K13)

직접적인 거절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K6, L8, K18, K19, K42)

(4) 직설적이고 공손하지 않다. (K37)

예의에 어긋나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다. (K6, K9, K43)

직원이 사장에게 쓰기에 부적절하고 무례해 보인다. (K14, K15, K16,

---

9) 답변 뒤 괄호 안에 나타난 건 실험 참여자 숫자를 말한다. ‘K36’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답변으로 자료 수집 순서에 따라 임의로 부여한 참여자 번호가 36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T1’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1번을 의미한다.

K36)

- (5) 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K1, K2, K8, K9, K16, K36, K37, K38, K40, K43)  
 윗사람에게 명령하는 느낌이 든다. (K6, K13, K14, K26, K35, K41)  
 예의 없어 보인다, 건방지다, 무례하다. (K3, K20, K24, K29, K31, K32, K33, K42)
- (6) 먹고 나서 평가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예의 없어 보인다. (K3, K13)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다. (K6, K25, K32, K36)  
 건방진 느낌이 든다. (K26)
- (7) 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다. (K19, K43)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다. (K3, K8, K13, K14, K18, K33, K42)  
 예의에 어긋난다, 무례하다(K9, K29, K31)
- (8) 예의가 없어 보이고 직접적인 느낌이 든다. (K08, K19)  
 공손하지 않고 무례해 보인다. (K3, K6, K14, K16)  
 버릇없어 보인다. (K36)

위 (3)~(8)의 한국인의 답변을 보면, ‘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이다, 무례하다, 건방져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안, 못, -(으)비시다, -(으)르 만하다, -답다, -(으)니까’를 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안’과 ‘못’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으)비시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권유할 수 없으며, ‘-(으)르 만하다’와 ‘-답다’를 통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 4>에서도 본 바와 같이 태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이 윗사람에게 ‘안, 못, -(으)비시다, -(으)르 만하다, -답다, -(으)니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과는 달리 이러한 표현을 외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한국어 표현에 대응되는 태국어 표현을 외사람에게도 쓸 수 있기 때문인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먼저, ‘안’과 ‘못’에 대한 한국어와 태국어의 차이를 보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상황은 외사람에게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쓰이는 ‘안’과 ‘못’이었다. 한국인이 ‘안’과 ‘못’을 직접적인 거절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비해 태국인 학습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 ‘죄송하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국어에서는 거절하기 전에 ‘ขอโทษ(커툰, 죄송하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태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굴절어인 한국어와는 달리 어휘적 표현으로 거절의 간접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태국인 학습자들은 ‘안 먹어요, 못 해요’ 전에 ‘죄송해요’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완곡하고 예의 있게 표현했다고 느낄 수 있다<sup>10)</sup>.

또한 ‘안’에 대해 물은 문항 15와 ‘못’에 대해 물은 문항 19를 비교해 보면, ‘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35.6%이고, ‘못’이 적절하다고 한 사람은 66.7%로 ‘안’보다 ‘못’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안’은 본인의 의지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이지만 ‘못’은 화자가 할 수 없다는 불가피함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들은 ‘죄송하다’라는 어휘적 표현이 선행되었더라도 ‘안’이나 ‘못’과 같은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태국인 학습자들은 앞에 ‘죄송하다’는 어휘적 완화 장치가 있으므로 뒤에 직접적 거절 표

10) 태국어에서 ‘죄송하다’는 상투적 표현으로 간접 화행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으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에서도 ‘죄송하다’를 완화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영(2010: 235)에서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요청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죄송하다’라는 서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이해영, 황선영, 노아실, 사마와디 강해(2016: 256)에서도 태국인 학습자들은 ‘죄송하다’를 예비 요청의 기능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태국어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에서의 ‘ขอโทษ(커툰, 죄송하다)’가 가지는 기능을 한국어 발화 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안’보다 ‘못’을 더 간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나, 완화 장치의 잘못된 사용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화용적 오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으)비시다’는 합쇼체로, 상대높임법에서 높임의 등급이 가장 높은 ‘아주 높임체’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윗사람에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현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윗사람에게 공손한 표현으로 잘 선택했다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으)비시다’에 해당하는 태국어는 ‘กั้นเดอะ (깐트, -(으)비시다)’인데, 태국어에서는 이 표현을 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가령, ‘ไป ร้านอาหารกั้นเดอะคะ อาจารย์ (빠이란아한깐트카 아짘, 선생님 식당에 갑시다)’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에서도 윗사람에게 ‘-(으)비시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항 9의 ‘-(으)르 만하다’는 한국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으)르 만하다’에 해당하는 태국어는 ‘นำ V(나 V)’와 ‘พอ V ได้ (퍼 V 다이)’ 두 가지가 있다. ‘นำ V(나 V)’는 ‘먹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의 ‘-직스럽다’와 비슷한 의미로 ‘-(으)르 만하다’의 긍정적인 의미에 해당되고, ‘พอ V ได้ (퍼 V 다이)’는 ‘그저 그렇다’는 의미로 ‘-(으)르 만하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먹을 만하다’를 태국어로 바꾸면, ‘นำกิน(나깁)’으로 번역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으)르 만하다’를 ‘นำกิน(나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으)르 만하다’를 ‘นำ V(나 V)’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단 간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으)르 만하다’와 ‘-답다’는 웃어른을 칭찬하는 상황에

서 쓰였다. (7)~(8)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으)리 만하다’와 ‘-답다’는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어를 살펴보면, ‘*สมกับเป็นอาจารย์* (솜깁뻔아짠, 선생님답다)’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도 ‘선생님다워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으)니까’는 태국인 학습자들도 한국인과 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어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한 반면, 태국어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เพราะ* (프리, 때문에)’ 한 가지만 있다. 따라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이유 표현은 습득이 어려운 항목 중 하나이며, 초급 문법 항목인 ‘-아/어서’와 ‘-(으)니까’의 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에 대한 교수가 비교적 상세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태국인 학습자도 ‘-(으)니까’의 의미와 사용 환경을 학습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들은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적절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으)니까’의 사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교수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표현의 등급화와 목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에서 한국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알맞게 고친 것중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답변을 보이면 (9)~(14)와 같다. (9)~(14)는 윗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맞게 고친 것이다. (9)는 ‘안 먹을게요’를, (10)은 ‘못 해요’를, (11)은 ‘식사하러 갑시다’를, (12)는 ‘먹을 만해요’를, (13)은 ‘선생님다워요’를, (14)는 ‘어려우니까요’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9) 밥을 먹고 와세요. (K6)  
 배가 불러서요. (K5, K6, K13, K14, K15, K16, K21, K38, K41)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K36, K42)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K37)
- (10)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K5, K8, K26)  
 힘들 것 같은데요. (K2)  
 어려울 것 같습니다. (K6, K14, K36, K37)  
 그래도 없을 것 같아요. (K3, K13)  
 (알아본 후) 다시 알아봐도 표가 없습니다. (K15)  
 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K9, K16, K38, K41)  
 그럼 다른 날짜라도 확인해 볼까요? (K33)
- (11) 드시러 가지죠. (K1, K2, K41)  
 식사하러 가실까요? (K9, K17, K20, K32, K42, K43)  
 식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K21, K36, K38)
- (12) 맛있네요. (K2, K3, K6, K14, K29, K32, K35, K37, K38, K41)  
 맛있어요. (K5, K6, K7, K13, K16, K18, K20, K21, K23, K24,  
 K25, K26, K27, K28, K31, K33, K36, K38, K40, K43)
- (13)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K9, K14, K18, K19, K22, K23, K26,  
 K27, K29, K37, K42)  
 감사합니다. (K8, K21, K24, K33)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K3, K6)
- (14) 어려워세요. (K2, K3, K5, K6, K9, K13, K15, K16, K18, K19,  
 K20, K21, K23, K26, K27, K29, K36, K37, K40, K41, K43)

(9)를 보면, 거절할 때 한국인들이 이유를 설명하거나 감사 인사를 한 후, ‘안’ 대신 ‘괜찮다’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거절 화행의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나 전략만을 가르치게 되면 간접성을 높이기 위한 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 약화될 수 있

다<sup>11)</sup>. (10)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못 해요’를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으로 바꾼 것을 통해서도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1)과 (14)는 화자인 학생이 청자인 선생님께 하는 말을 바르게 고친 것이다. (12)와 (13)을 통해서도 한국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할 수 없으나, 윗사람이 만든 음식을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문법적 표현에 대한 적절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는 문법적 표현이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문법적 표현의 다른 사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문법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굴절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태국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청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문법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화용적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에서는 화청자 간 관계에 따른 표현의 사용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9)~(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발화를 바탕으로 한 상황별 언어 표현의 목록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1) 황선영(2016a: 187)에서는 한국어에서는 형태, 통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완화 장치에 의해서도 발화의 간접성이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청 화행에서 ‘-아/어도 돼요?’와 ‘-(으)면 안 될까요?’는 ‘청자의 허락 구하기’ 전략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표현의 간접성의 정도는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4. 상투적 표현 항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투적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싸게 샀어요, 덕분에, 뭘 이런 걸 사 왔어?, 한번 생각해 볼게’를 설정하였다. 상투적 표현은 각각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과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4.1. 축자적 의미로 쓰인 상투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상투적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 즉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문항은 13, 1, 10, 6, 23, 17번이었다. <표 5>는 상투적 표현이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상투적 표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항목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 확률
			①	②	③	④			
13	어떻게 해요?	KNS	0 (0%)	6 (13.3%)	28 (62.2%)	11 (24.4%)	10.171	3	.017
		TKL	5 (11.1%)	9 (20%)	28 (62.2%)	3 (6.7%)			
1	잠시만요	KNS	2 (4.4%)	13 (28.9%)	25 (55.6%)	5 (11.1%)	6.495	3	.075*
		TKL	2 (4.4%)	10 (22.2%)	33 (73.3%)	0 (0%)			
10	싸게 샀어요	KNS	0 (0%)	0 (0%)	29 (64.4%)	16 (35.6%)	11.324	3	.005*
		TKL	3 (6.7%)	2 (4.4%)	35 (77.8%)	5 (11.1%)			

6	덕분에	KNS	0 (0%)	2 (4.4%)	20 (44.5%)	23 (51.1%)	1.726	2	.458*
		TKL	0 (0%)	1 (2.2%)	26 (57.7%)	18 (40%)			
23	뭘 이런 걸 사왔어?	KNS	5 (11.1%)	10 (22.2%)	25 (55.6%)	5 (11.1%)	6.111	3	.114*
		TKL	1 (2.2%)	5 (11.1%)	35 (77.8%)	4 (8.9%)			
17	한번 생각해 볼게	KNS	0 (0%)	7 (15.6%)	23 (51.1%)	15 (33.3%)	11.466	2	.003*
		TKL	0 (0%)	2 (4.4%)	38 (84.4%)	5 (11.1%)			

상투적 표현이 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 집단 모두 대부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1, 문항 6, 문항 23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항 1:  $\chi^2=6.495$ ,  $p=.075^*$ , 문항 6:  $\chi^2=1.726$ ,  $p=.458^*$ , 문항 23:  $\chi^2=6.111$ ,  $p=.114^*$ ). 그러나 문항 13, 문항 17, 문항 10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문항 13:  $\chi^2=10.171$ ,  $p=.017$ , 문항 10:  $\chi^2=11.324$ ,  $p=.005^*$ , 문항 17:  $\chi^2=11.466$ ,  $p=.003^*$ ), 이는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를 선택한 비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의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두 집단이 대부분 상투적 표현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4.2. 비축자적 의미로 쓰인 상투적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상투적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좀더 확장된 의미, 즉 비축자적

<표 6> 비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상투적 표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항목	집단	설문 문항 선택지				$\chi^2$	자유도	유의 확률
			①	②	③	④			
5	어떻게 해요?	KNS	15 (33.3%)	12 (26.6%)	16 (35.6%)	2 (4.4%)	4.950	3	.175
		TKL	14 (31.1%)	7 (15.6%)	24 (53.3%)	0 (0%)			
24	잠시만요	KNS	0 (0%)	1 (2.2%)	27 (60%)	17 (37.8%)	29.050	3	.000
		TKL	14 (31.1%)	7 (15.6%)	21 (46.7%)	3 (6.7%)			
22	짜게 샀어요	KNS	2 (4.4%)	8 (17.8%)	28 (62.2%)	7 (15.6%)	7.897	3	.048*
		TKL	5 (11.1%)	4 (8.9%)	35 (77.8%)	1 (2.2%)			
16	덕분에	KNS	2 (4.4%)	3 (6.7%)	27 (60%)	13 (28.9%)	10.328	3	.008*
		TKL	3 (6.7%)	2 (4.4%)	38 (84.4%)	2 (4.4%)			
12	뭘 이런 걸 사왔어?	KNS	0 (0%)	3 (6.7%)	23 (51.1%)	19 (42.2%)	13.289	3	.002*
		TKL	3 (6.7%)	3 (6.7%)	34 (75.6%)	5 (11.1%)			
4	한번 생각해 볼게	KNS	6 (13.3%)	7 (15.6%)	24 (53.3%)	8 (17.8%)	8.113	3	.044
		TKL	0 (0%)	7 (15.6%)	33 (73.3%)	5 (11.1%)			

의미로 해석되는 문항은 5, 24, 22, 16, 12, 4번이었다. 상투적 표현이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 간의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상투적 표현이 비축자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서와 같이 한국인과 태국인 학습자 집단 모두 대부분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문항 22, 문항 16, 문항 12, 문항 4를 보

면, 한국인 대부분이 ‘적절하다’ 혹은 ‘매우 적절하다’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달리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상투적 표현이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적절하다’를 선택하였다.

상투적 표현이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문항 5를 제외하고는(문항 5:  $x^2=4.950$ ,  $p=.175$ ), 모든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문항 24:  $x^2=29.050$ ,  $p=.000$ , 문항 22:  $x^2=7.897$ ,  $p=.048^*$ , 문항 16:  $x^2=10.328$ ,  $p=.008^*$ , 문항 12:  $x^2=13.289$ ,  $p=.002^*$ , 문항 4:  $x^2=8.113$ ,  $p=.044$ ). 이 역시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를 다른 항목으로 보고 교차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집단 간 항목별 선택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항 5의 경우, 한국인 35.6%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4.4%가 ‘매우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33.3%는 ‘매우 부적절하다’, 26.6%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15)는 부적절하다고 답한 한국인의 답변이고, (16)은 ‘어떻게 해요?’를 고쳐 쓴 것이다.

(15) ‘어떡해요’를 잘못 쓴 것 같다. (K2)

‘어떻게 해요?’는 방법을 질문하는 것 같다. (K13, K18, K28)

(16) 어찌죠? (K18, K19, K26, K38)

어떡하죠? (K28, K29)

어떡하지요? (K2, K23)

어떡해요?(K9, K27)

어떻게 하지요? (K3, K7, K13, K35, K40, K41)

(15)와 (16)을 보면, ‘어떻게 해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한국인들은 음운을 축약한 형태로 바꾸거나 ‘-아/어요’를 ‘-지요(죠)’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적절하다고 답한 경우에도 해당 표현



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어적으로 굳어진 형태로 이야기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항 24의 ‘잠시만요’는 지하철에서 잠깐 비켜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쓰인 표현이었다. 한국어 ‘잠시만요’ 표현에 해당하는 태국어 표현으로는 ‘สักครู่(싸크루), ประเดี๋ย(쁘라디아우), เดี๋ยวก่อน(디아우껀)’가 있다. ‘สักครู่(싸크루)’는 ‘잠깐 동안(for a while)’의 의미에 가깝고, ‘ประเดี๋ย(쁘라디아우)’는 ‘잠시 후(soon)’, ‘เดี๋ยวก่อน(디아우껀)’는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잠시 붙잡을 때 ‘잠깐만 기다리라(wait, just a minute)’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태국어에서는 문항 24와 같은 상황에서 ‘잠시만요’를 의미하는 위의 3개의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보통 ‘ขอโทษ(커툼, 죄송해요)’, ‘ขอทางหน่อย(커탕너이, 비켜주세요)’를 사용한다. 따라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한 학습자 31.1%와 ‘부적절하다’고 답한 15.6%는 (17)과 같은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7)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다. (T4, T7, T15, T18, T19)

이럴 땐 ‘죄송해요’라고 해야 한다. (T9, T23, T24, T32, T44)

‘잠시만요’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T37, T45)

(17)을 보면 학습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와 태국어가 다른 표현을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시만요’가 가지는 요청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22의 ‘싸게 샀어요’는 선물을 줄 때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표현이었고, 문항 16의 ‘덕분에’와 문항 12의 ‘뭘 이런 걸 사왔어?’는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세 문항 모두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은 대부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태국어에도 선물할 때 문항 22에서와 같이 ‘มันลดราคาอยู่(만룻라카유, 할인해서 샀다), ของไม่ได้

มีราคาแพง(콩마이다미라카แพง, 비싼 거 아니다)’와 같은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또한 ‘ซ้อมทำไม่ก็ไม่รู้’(쓰마탐마이꺼마이루, 왜 이런 걸 사왔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표현이 있어서 문항 12가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러나 ‘덕분에’는 한국어와 태국어에 차이가 있다. ‘덕분에’는 태국어로 ‘บุญคุณ(분쿤, 은혜)’ 혹은 ‘เพราะ(프리, 때문에)’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덕분에’가 관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태국어의 ‘บุญคุณ(분쿤)’은 은혜를 입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เพราะ(프리, 때문에)’는 영어의 ‘because of’에 가까운 의미로 ‘덕분에’의 느낌을 온전히 살려준다고 할 수는 없다.

상투적 표현이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축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서와 같이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축자적으로 쓰이는 상투적 표현을 습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학습자들이 비축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표현을 축자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문항 4의 ‘한번 생각해 볼게’는 거절의 의미로 사용된 상황이었는데, <표 6>을 보면 한국인과 학습자 모두 ‘적절하다’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 표현을 한국인과 같이 인식한 데는 한국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가 거절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가 거절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모르고 ‘진짜 생각을 해 보겠다’는 축자적 의미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학습자들이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상투적 표현을 한국인과 같이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 참여자 다섯 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8)은 사후 인터뷰의 일부이다<sup>12)</sup>.

(18) 연구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했으니까 친구가 나중에 답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학습자 1: 기다리죠. 다른 사람을 몰라도 특히 친한 친구면 기다릴 것 같아요.

학습자 2: 기다려요. B가 갈 확률과 안 갈 확률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학습자 3: 기다려요. 생각해 본다고 말했으니까요.

학습자 4: ‘한번 생각해 볼게요’는 ‘-(으)ㄴ게요’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약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학습자 5: 안 기다려요. 이렇게 대답하면 별로 기대 안 해요.

(18)을 보면 5명 중 학습자 5번을 제외한 4명은 ‘한번 생각해 볼게’를 축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비축자적 의미를 알고 한국인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상투적 표현도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투적 표현이 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한국인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태국인 학습자도 한국인과 같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상투적 표현을 비축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축자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화용적 표현에 대해

---

12) 사후 인터뷰는 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1:1로 진행되었으나 지면상 동시에 제시하였다.

한국인과 같이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화용적 표현을 문법적 표현과 상투적 표현으로 분류하여,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각각 45명을 대상으로 화용 표현 인식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교차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는 문법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화용적 항목의 인식에 대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문법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화용적 항목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에는 한국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한국인은 해당 표현을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반면, 태국인 학습자들은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화청자의 관계에 따른 문법적 표현의 다른 쓰임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상투적 표현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상투적 표현은 선행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와 같이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투적 표현이 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비축자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투적 표현에서는 문법적 표현에서와는 달리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상투적 표현의 비축자적 의미에 대해 습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사후 인터뷰 결과 비축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축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법적 표현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더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상투적 표현을 추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상황에서 화용적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화용적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화용언어적 실패의 출처는 교수(훈련)에 의한 것(teaching-induced error)과 화용언어적 측면에서의 모국어의 전이(transfer)를 들 수 있다(이해영, 2002: 61). 따라서 태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와 태국어의 언어적 차이에 대해 명확히 교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법이나 어휘의 기본적 의미의 습득이 화용적 항목의 습득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이정란, 2011; 이해영, 2011; 황선영, 2016b)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나선형 교수요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급에서 다른 문법이나 어휘라도 그 문법이나 어휘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거나 해석되는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초급에서는 문법이나 어휘의 기본 의미를 다루고, 중급 이후에서는 문법이나 표현의 확장된 의미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와 다양한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화용론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오류를 설명하고 교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화용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표현은 교육 현장에서 교수 항목의 등급화와 목록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문금현(2009). 한국어의 고정적인 화용 표현 연구, <국어국문학>, 152, 181쪽~217쪽.
-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45쪽~70쪽.
- 이혜영(2010). 한국어 요청 화행의 적절성에 대한 태국인의 인식과 숙달도,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219쪽~241쪽.
- 이혜영(20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335쪽~360쪽.
- 이혜영, 황선영, 노아실, 사마와디 강해(2016).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화행 연구, <한국어교육> 2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3쪽~260쪽.
- 최길시(1998).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하지혜(2014).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대화에 나타난 상투적 표현 이해 연구, <이중언어학> 55, 이중언어학회, 435쪽~455쪽.
- 황선영(2014). 요청 화행에서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연구-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47, 한국어교육학회, 431쪽~454쪽.
- 황선영(2016a) 형태, 통사적 완화 장치 분석을 통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간접 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62, 이중언어학회, 185쪽~208쪽.
- 황선영(2016b). 캄보디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65, 이중언어학회, 281쪽~306쪽.
- Bardovi-Harlig, K(2010). "Recognition of Conventional Expressions in L2Pragmatics", *Pragmatics & Language Learning*, 12, 141~162.
- Richards, J. C., & M. Sukwiwat(1985). Cross-cultural aspects of conversational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edited by J. C. Richards, 129-43. London: Longman.
- LoCastro V.(2006).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Social Action for Language Teacher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사마와디 강해(Samawadee Kunghae)

태국 송클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어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박사 과정

181 Chareonpradit Road, Rusamilae, Muang, Pattani 94000, Thailand

전화번호: +66-75-640037

전자우편: songkla90000@naver.com

황선영(Hwang, Sunyoung)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전임강사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번호: 02-3277-3715

전자우편: hwangsy8199@ewha.ac.kr

접수일자: 2017년 7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9월 7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8일